

世祖의 ‘樂章’ 革新運動과 그 守成의 美學

申斗煥*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세조의 생애와 악장 인식
3. 악장혁신운동의 논리와 그 수성의 미학
4. 결론

1. 문제의 제기

조선의 15세기 미학을 조명하는 일은 조선건국의 철학이 담긴 樂章을 빼고는 서술되기가 어렵다. 또 15세기는 관각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5세기 조선건국과 함께 개혁되기 시작한 악장은 새로운 유교문화 공간에 개혁과 창조의 충동을 모든 면에서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의 분위기는 주체적인 조선정신을 추구하고 수성의 방향을 정해주며, 새로운 악장을 탄생하게 했다. 조선의 건국과 수성의 주요 테마들이 민족 주체적인 조선악장에 담겨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조선전기 악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민족자주의식은 조선정신을 태동시켰으며 이는 우리 역사에서 길이 남을 주목할 만한 것들이었다.

儒教를 國是로 삼은 조선은 국가대업의 기초를 禮制와 樂章에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들이 다투어 생산되었고, 성인의 정치에 합하고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자 하여 화려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전기 악장에 관한 연구는 문학과 관련을 지으면서 연구되어야 한다. 악장은 詩·樂·舞가 삼위일체가 되는 종합예술로서 문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 예악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예악을 정리하고 조선의 예악을 제정하려는 예악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조선전기 문학연구에서 예악의 분야는 빼놓을 수 없다. 세조의 예악에 대한 혁신운동은 민족적인 주체성이 살아 숨 쉰다. 이것은 皇帝國을 지향하고 있으며 민족주체성의 고양과 조선의 자긍심이 함의되어 있다. 이러한 세조의 악장연구는 15세기 우리문예미학을 조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포악한 임금으로 주목되어 그의 업적마저도 비하되는 감이 있다. 세종 당시의 학술진흥과 집현전 설치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는 듯했으나 세조대의 정변은 관학과 내의 분열을 야기하였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하여, 대의명분에 충실하려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는 부류들은 사육신과 같이 죽음으로 대의명분을 지키기도 하고 생육신과 같이 세상에 뜻을 버리고 지조를 지키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실과 이념 사이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金時習(1435~1493년)·南孝溫(1454~1492년)과 같이 방외의 길을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숙주, 서거정, 양성지 등을 비롯한 조선조 수성의 정치에 뜻을 둔 일련의 집현전 학사들은 세조의 정권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관료들은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아직 완비되지 못한 제도와 의례의 정비작업에 나섰다. 성종 대에 완결되는 경국의 제도와 의례의 정비는 이들 관료들에 의해서 기초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15세기 조선관각문학의 방향은 문학의 가치를 대개 문장은 經國之大業이요 不朽之盛事라는 입장에서 文以治用

의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¹⁾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조선건국과 함께 발전되던 악장문학은 <용비어천가>에 와서 집대성되었다. 세종대에 많은 制禮作樂의 정신이 창작에 머물렀다면 세조는 그 뜻을 계승하여 모든 공식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세조의 악장혁신 운동에 나타난 그 수성의 미학은 조선의 자긍심 그 자체였다. 세조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악장토착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악 발전에 이바지했다. 세조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은 세조대의 많은 업적들을 비하시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악장에 대한 것이다. 조선건국과 함께 진행되어온 조선의 악장은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한다.

조선전기의 악장연구는 국문학의 고전문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것에 비해서 한문학 분야에서 한문악장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지극히 소략하다.

본고에서는 15세기 미학에 대한 조명의 일환으로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에 주목하고 그 실상을 연구하여 15세기 조선 문학사의 위상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2. 세조의 생애와 악장 인식

조선의 가장 포악한 임금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선 제7대 임금 世祖(1417~1468)의 재위 기간은 14년(1455~1468)이다. 본관은 全州, 이름은 瑠, 자는 粹之이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문종의 아우이며, 어머니는 昭憲王后沈氏이다.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明敏하여 학문도 잘했으며, 무예도 남보다 뛰어났다.

세조는 12세 때(세종10년, 1428 무신) 6월 16일(정유)²⁾에 大匡輔國晉

1) 『典論 論文』, “蓋文章經國之大業不朽之盛事.”

平大君의 작호를 받았다. 같은 해 軍器副正 尹璠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왕비는 貞熹王后 尹氏이다.

세조는 14세 때 (세종12년, 1430 경술)에 성균관에 입학했다. 세종은 대군들을 성균관에 입학시켜 공부시켰다. 15세 때에 (세종13년, 1431 신해) 5월 4일(정묘)에 경희루 아래에 나아가 火炮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 때 세종이 晉平大君 李瑄·安平大君·李瑢·臨瀛大君 李瑬·恭寧君 李裨·敬寧君 李栻 이하 여러 종친에게 과녁에 활쏘기를 명하였다. 이때부터 무예를 열심히 닦고 병서에 관심을 보였다. 9월 23일(갑신) 晉平大君 李瑄의 瘡疹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는 데 이때부터 부스럼 병이 있게 된 것 같다.

17세 때 (세종15년, 1433 계축) 7월 1일(임자)에 晉陽大君으로 작호가 변경되었다. 이 앞서 咸平으로 봉하였었는데, 함평은 咸興의 별칭이고 咸平縣과 혼동될까 하여 고친 것이었다. 12월 12일(신유)에 중국 사신 孟捏加來·崔眞 등이 북경으로 돌아갔다. 세종은 晉陽大君 李瑄에게 명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전별연을 모화관에서 베풀었다. 이후 세종은 진양대군에게 자주 전별연을 맡겼다. 전별연에는 악무가 공연되었으며 이것은 후에 세조가 악무를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세종은 세조를 장차 왕권 강화를 위한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 그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쌓게 하였다. 18세 (세종16년, 1434 갑인) 6월 7일(임자)에 진양 대군 이유·안평 대군 이용·안승선 등으로 ‘자격수 차를 보게 하다. 세조는 이것을 가뭄에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7월 2일(정축) 에 “지중추원사 李蕝을 불러 의논하기를, “태종께서 처음으로 鑄字所를 설치하시고 큰 글자를 鑄造할 때에,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억지로 우겨서 만들게 하여, 모

2) 세조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세조실록』을 참조한 날짜별 기록이므로 이 이후는 주석을 생략함.

든 책을 인쇄하여 중외에 널리 펴오니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나. 다만 초창기이므로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매양 인쇄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먼저 밀랍을 판 밑에 펴고 그 위에 글자를 차례로 맞추어 쫓는다. 그러나 밀의 성질이 본디 부드러우므로 植字한 것이 굳지 못하여 겨우 두어 장만 박으면 글자가 옮겨 쏠리고 많이 비뚤어져서, 곧 따라 고르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인쇄하는 자가 괴롭게 여겼다. 내가 이 폐단을 생각하여 일찍이 경에게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더니 경도 어렵게 여겼으나 내가 강요하자 경이 지혜를 써서 판을 만들고 鑄字를 부어 만들어서, 모두 바르고 고르며 견고하여 비록 밀을 쓰지 아니하고 많이 박아 내어도 글자가 비뚤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이제 대군들이 큰 글자로 고쳐 만들어서 책을 박아 보자고 청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근래 北征으로 인하여 兵器를 많이 잃어서 銅鐵의 소용도 많다. 더구나 이제 공인들이 각처에 나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심히 번거롭고 많지마는 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부족한 것을 晉陽大君 瑑에게 쓰도록 하고 鑄字 20여 만 자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루의 박은 바가 40여 장에 이르니, 字體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라고 하였다.

19세(세종17년, 1435 을묘) 4월 1일(임인) 임금이 장차 使臣을 전별하려고 太平館에 거둥하여 輦에서 내려 御室에서 도승지 辛引孫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궁중에 있을 때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나 禮는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더니, 지금 여기에 와서는 허리와 등이 굳고 쫓쫓하여 굽혔다 폈다 하기가 어렵다. 지난해에 최 사신이 돌아갈 때에 나와 東宮이 모두 편치 못하여 大君에게 명하여 대신 잔치하였으니 지금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晉陽大君 李瑑로 하여금 대신 잔치하려 하는데, 임금이 곧 태평관에 나아가서 사신과 작별하고 환궁하여 진양 대군 이유에게 명하여 대신 전별연을 행하였다. 4월 3일(갑진)에 모화관에서 사신을 전송하다. 4월 27

일(무진)에 임금이 몸이 편치 못하여 晉陽大君 李瑋를 명하여 대신 잔치를 베풀었다. 세종임금은 외국 사신들의 전별연은 거의 진양대군에게 믿고 맡겼으며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세조는 예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20세(세종18년, 1436 병진) 7월 29일(임술), 통감의 주석이 그 舊註는 글자 모양이 조금 지지분하므로 주상께서 춘추가 높아지면 보시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시어, 晉陽大君 李瑋로 하여금 큰 글자로 써서 이를 새로 鑄造하여 새 글자로써 綱을 삼고 옛글자로써 目을 삼게 하였다. 라고 하고 있다. 세조는 책을 편집하는 일에 경험을 쌓고 있었으며 세조는 후에 많은 서적을 편찬하는데도 공력이 있었다.

22세(세종20년, 1438 무오) 3월 3일(정해) 이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 경원과 경흥은 조종께서 임금으로 일어난 지방인데, 지금은 나누어 會寧·鍾城이 되었고 모두 새로 설치한 진이니 온갖 규모를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경계가 저 사람들의 지역과 연결하여 오로지 방어하는 데에만 중하게 여기었다. 거주하는 백성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벼슬하지 못한 까닭으로 조정의 전장에 익숙하지 못하고 큰 체통도 알지 못하므로, 따라서 습관 풍속도 후하지 못하였다. 지금 그곳의 자제들을 가려 서울에 와서 서용하도록 하고, 또 京在所를 설치하여 풍속을 살피게 하고 종친에게 주장하도록 명한다. 晉陽大君 李瑋는 경원을, 안평대군 李瑢는 회령을, 臨瀛大君 李璆는 경흥을, 광평대군 李璵는 종성을 주장하여, 각각 본 고을을 총괄하게 하여 길이 북방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라.”하였다. 이 기록은 세종이 세조에게 북방의 국토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하기위해 직접 경흥에 나아가 국방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체득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25세(세종23년, 1441 신유) 1월 10일(무신) 세종이 傳旨하기를, “금후로는 晉陽大君 李瑋·安平大君 李瑢도 아울러 궁궐에서 講讀하게 하되, 集賢殿 관인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집현전에서 강독하는

법을 올리되, “날마다 읽은 것은 반드시 외우게 하고 일 년에 20차례 이상 직접 글을 읽게 하며, 날마다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를 고찰하여 置簿하였다가 월말에 啓聞하게 하옵되, 5일마다 전에 5차례 수업한 것을 가지고 요량하여 通讀해서 考講하게 하여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를 써서 월말에 아뢰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는 이 시기에 본격적인 공부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집현전 학사들과 교유하며 많은 연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월 28일(계사) 『치평요람』의 편찬을 정인지에게 명하다. 賜名하기를 『治平要覽』이라 하였다. 晉陽大君 李瑄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드디어 文學하는 선비를 集賢殿에 모아서 分科하여 성취하게 하였다. 세조는 집현전의 학자들을 전공별로 나누어 分管하면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깊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6세 세종 24년(1442 임술) 3월 15일(병자)에 임금이 都里平과 院平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晉陽大君 李瑄가 말을 달려서 사슴을 쫓다가 다른 사슴이 와서 받으니, 이 때문에 이유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 마침 이유가 났던 말은 발광하며 핵 도는 버릇이 있는 말이라, 임금이 사헌부에 傳旨하기를, “內廐馬 중에 이러한 악한 버릇이 있는 말은 기르지 말라고 앞서 傳敎한 적이 있었는데, 司僕官吏가 항상 그런 말을 길렀으니 提調 李思儉과 판사 金義之를 추문하여 아뢰라.”하고, 곧 여러 대군에게 명하여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못하게 하고는, 諸君과 中樞 洪約 등을 圍內에서만 馳射하게 하고 大賢平에 돌아가 머물렀다. 세조는 아버지 세종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27세(세종25년, 1443 계해) 1월 22일(무인) 晉陽大君 李瑄에게 수릉 산맥을 찾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풍수지리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것 같다. 또 晉陽大君 李瑄와 安平大君 李瑢에게 晉나라·宋나라 이후 여러 나라의 세자에 대한 故事를 기록하여 올리게 명하였다. 이 사실에

미루어 보면 대군과 세자의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정립하고 깊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 25년(1443 계해) 7월 10일(계해)에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高麗 때에는 圓壇祭를 지냈었는데, 우리 太宗께서 僭禮의 일은 다 혁파 하셨다. 원단제를 혁파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궁벽하게 海外에 있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의정부·예조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세조는 원구단의 제례에 대해 이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7세(세종25년, 1443 계해) 11월 13일(갑자) 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晉陽大君 李瑋로 都提調를 삼고, 의정부 좌찬성 河演·호조판서 朴從愚·지중추원사 鄭麟趾를 제조로 삼았다. 12월 13일(계사) 진양 대군 이 유·좌찬성 하연 등에게 명하여 서교에 가서 전품을 나누어 시험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조는 田制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28세(세종26년, 1444 갑자) 2월 16일(병신) 集賢殿校理 崔恒·부교리 朴彭年, 副修撰 申叔舟·李善老·李塏·敦寧府注簿 姜希顏 등에게 명하여 議事廳에 나아가 諺文으로 『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東宮과 晉陽大君 李瑋·安平大君 李瑑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11월 18일(계사) 집현전과 춘추관에서 『治平要覽』과 『歷代兵要儀註』를 詳定한 여러 선비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진양 대군 李瑋를 명하여 연회를 관리하게 하였다.

29세(세종27년, 1445 을축) 1월 18일(임진) 세자에게 양위할 뜻을 밝히기를 임금이 晉陽大君 李瑋로 하여금 신개·하연·권제·김중서에게 전지하였다. 세조는 이때부터 김중서와 자주 부딪히면서 대립이 점점 깊어졌을 듯하다. 세조는 자주 진양대군을 내세워 대신 왕명을 전달하게 하고 중요한 일을 자주 맡겼다. 2월 11일(을묘) 이유를 수양 대군으로 작호를 고치다.

31세 세종 29년(1447 정묘) 6월 5일(병인) 金守溫의 형이 出家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信眉라고 하였는데, 首陽大君 李瑋와 安平大君 李瑢이 매우 믿고 좋아하며 따랐다. 세조는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

33세 (세종31년, 1449 기사) 6월 5일(계축)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首陽大君 李瑋를 명하여 內香을 받들고 흥천사에 가게 하였는데 이 유가 合掌을 하고 몸을 흔들며 佛塔을 돌았으며, 또 臺監監察 河淳敬을 강제로 역시 자기와 같이 가게 하니 순경이 늙고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수양 대군이 장춘더러 부처에게 예를 하지 않는다 하여 꾸짖어 욕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부처에게 예를 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그러나, 臺監으로서 부처에게 예를 하기는 순경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세조는 불교에 신봉하였으며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듯하다.

7월 1일(기묘) 首陽大君 李瑋와 都承旨 李思哲을 명하여 興天寺에서 祈雨하게 하였는데, 李瑋가 僧徒 속에 섞여서 뛰어 돌아다니며 땀이 흘러 등이 젖었어도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이 불도의 가르침에 惑信하였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孔子의 道보다 나으며 程子와 朱子가 그르다고 한 것은 佛氏를 깊이 알지 못한 것이었다. 天堂·地獄과 死生·因果가 실로 이치가 있는 것이요 결코 虛誕한 것이 아닌데, 불씨의 道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자는 모두 망령된 사람들이라 내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宗室 중에 李瑋와 安平大君 李瑢이 깊이 존경하여 신봉하였다.

12월 11일(정사) 신악의 존폐 여부를 의정부와 관습도감에서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新樂이 비록 雅樂에 쓰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祖宗의 공덕을 형용하였으니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의정부와 慣習都監에서 함께 이를 관찰하여 그 가부를 말하면, 내가 마땅히 損益하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新樂의 節奏는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저녁에 제정하였다. 수양 대군 李瑋 역시 聲樂에 통하였으므로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니, 기생 수십 인을 데리고 가끔 禁中에서 이를 익혔다. 그 춤은 七德舞를 모방한 것으로 弓矢와 槍劍으로 치고 찌르는 형상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 처음에 朴堧에게 명하여 鍾律을 정하게 하였다. 박연이 일찍이 玉磬을 올렸는데 임금께서 쳐서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夷則의 경쇠소리가 약간 높으니 몇 푼을 감하면 調和가 될 것이다.”하시므로, 박연이 가져다가 보니 경쇠공이 잊어버리고 쪼아서 고르게 하지 아니한 부분이 몇 푼이나 되어 모두 임금의 말씀과 같았다. 세조는 음악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으며 세종의 악장혁신의 뜻을 깊이 계승하고자 하였다.

34세 때 (세종32년, 1450 경오) 윤1월 20일(을축) 예겸과 사마순이 북경으로 돌아가니 수양 대군 이유로 하여금 모화관에서 전송케 하였다. 세조는 전별연을 직접 관장하면서 우리의 악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였다.

36세 (문종2년, 1452 임신) 4월 27일(신묘) 지금 조정에서 전해 말하기를, ‘首陽大君이 음악을 이는 까닭으로 慣習都監의 都提調로 임명했는데 지금 琮를 慣習都監의 都提調로 삼으니, 이것은 祖宗의 이루어진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를 고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세조는 음악에 상당히 정통하였으며 세종과 문종으로부터 강한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문종은 세조를 옹호하며 慣習都監의 都提調를 맡겨 예악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때 鄉樂의 樂譜도 감장·정리하였다.

세종이 세조에게 『律呂新書』를 보라고 명하며 말하기를, “이러한 큰일은 네가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세조가 이를 읽으면서 오직 날짜가 부족해 하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학문이란 모름지기 어려운 곳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律·曆의 이치란 그 깊이로 말하면 한이 없고 그 크기로 말하면 끝이 없어서 오직 성현만이 관장할 수 있던 것이다.”하였고, 세종이 또 문종과 더불어 曆法을 논하여 말하기를, “역법은 깊은 味道가 있어야 하니 首陽大君에게 맡기면 능히

이를 알 것이다. 수양대군은 학문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³⁾ 세조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박학다식하였다. 세종은 둘째아들인 세조에게 制禮作樂의 발전을 위해 음악을 공부해 두기를 은근히 바랐다. 세조의 음악에 대한 공부와 타고난 천성은 후대 조선의 악장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1452년 5월에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이에 7월부터 그는 심복인 權擘·韓明澮 등과 함께 정국 전복의 음모를 진행시켜 이듬해 1453년(단종 1) 10월, 이른바 계유정난을 단행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폭력으로 정국을 전복시키고 軍國의 대권을 한 손에 쥔 그는 자기 심복을 요직에 배치,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39세 1455년 윤 6월 단종에게 강요하여 왕위를 受禪하였다. 즉위한 해 8월에 集賢殿直提學 梁誠之에게 명해 우리나라의 地理誌와 지도를 撰修하게 하였다. 11월에는 春秋館에서 『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40세 1456년(세조 2) 6월에 좌부승지 成三問 등 이른바 死六臣이 주동이 되어 단종 복위를 계획했으나 일이 발각되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신하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뒤따라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經筵을 정지시켰으며, 집현전에 藏置된 서적은 모두 藝文館에 옮겨 관장하게 하였다.

世祖는 卽位年에 ‘六典詳定所’를 신설하고 그 詳定官으로 崔恒을 新典 편찬의 총책임자인 提調로 임명하고, 戶典은 韓繼禧, 刑典은 金國光, 禮典은 姜希孟등에 책임을 맡겨 편찬에 착수하였으며, 1458년(世祖 4)에 草案이 만들어져 찬진되자 세조는 몸소 수정을 가하였다. 崔恒(1409~1474)과, 韓繼禧(1423~1482)가 책임자가 되어 개인의 재산거래관계가 들어 있는 戶典과 戶典登錄을 합하여 『經國大典戶典』이라고 불렀다. 성종 대에 만들어진 『經國大典』·『國朝五禮儀』·『東國通鑑』·『東國輿地勝覽』·『東文選』·『樂

3) 『세조실록』, 卷31, 9년 12월(乙未) 條 참조.

學軌範』 등은 모두 세조 때에 기획되어 성종때 완성을 본 것이었다. 세조의 분신으로 조선 수성기의 학문적 토대를 담당하게 되는 梁誠之·徐居正·成任·姜希孟·鄭麟趾·申叔舟 등의 학문적 경향은 다분히 민족적이고 진취적이며 실용적이었다.

세조는 忠順堂에 나아가서 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영의정 具致寬·좌의정 黃守身·우의정 朴元亨·右贊成 曹錫文·左參贊 尹子雲·호조판서 盧思愼·大司憲 梁誠之·漢城府尹 李石亨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鄭自英 등과 더불어 太極·無極의 이치를 때가 지나도록 論難하였다.⁴⁾ 세조는 성리학에 대한 연구도 깊게 하였다.

세조가 梁誠之와 任元濬 등에게 명하여 여러 學門을 나누어, 각 학문에 6인을 두고 나이 어린 文臣을 여기에 배정하였으니, 天文門에 李亨元·鄭孝常·河叔山·金述·金敬禮·金升卿, 風水門에 崔八俊·裴孟厚·金懶·金悌臣·金峻·申叔楨, 律呂門에 成俊·安緝·元甫崙·朴良·魚世恭·崔漢良, 醫學門에 李壽男·孫昭·李吉甫·金義綱·李益培·柳文通, 陰陽門에 柳戚·洪貴達·李瓊全·朴喜孫·孫比長·柳允謙, 史學門에 金季昌·金宗蓮·崔叔精·柳休復·金良峻·金宗直, 詩學門에 崔敬止·閔粹·柳洵·金克儉·成倪·李則을 배정하였다.⁵⁾

이 사실에서 볼 때 세조는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을 叢類로 분류하고 세분하여 전문적인 연구로 학문의 체계를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듯하다. 訥齋는 이 학문연구의 선봉이 되어 金宗直·成倪·崔淑精·孫比長 등 후배 학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학문연구의 풍토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듯하다. 모든 학문을 유형별로 나누는데 각 학문마다 나이 젊은 문관으로 6명씩 배치시켜 공부하게 하였으며 학문의 분류는 「천문문」·「풍수문」·「율려문」·「의학문」·「음양문」·「사학문」·「시학문」으로 나

4) 『世祖實錄』, 12년 4월 19일(己未) 條 참조.

5) 『世祖實錄』, 10년 7월 27일(戊寅) 條 참조.

누었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이 '律呂門'이다. 세조는 올려문에 成俊·安緝·元甫崙·朴良·魚世恭·崔漢良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음악에 관해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에 치중한 것으로 악장개혁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여기에 나열된 학문의 성격들은 경세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이었다.

세조는 신료들이 명나라에 갈 때 책을 조사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明皇誠鑑』을 번역하게 하였고, 『太平廣記』 번역사업도 전개하였다. 도서를 관장하는 문헌학을 장려하기도 했다. 또 세조는 역대의 인물과 程明道·伊川·濂溪·司馬光의 문장과 사업을 논하였다.⁶⁾ 세조는 국시인 유교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유교에 박학다식했다. 그는 학문의 방향을 실용위주의 경세적 학문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조는 梁誠之에게 오류와 관계되는 것을 찬술케 하고 『오륜록』으로 간행하게 했다.⁷⁾ 訥齋는 여러 경전에서 오류와 관련된 것을 뽑아서 윤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세조는 조선의 수성을 위한 유교적 윤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세조는 訥齋에게 세자를 가르칠 책을 초록하게 했다. 세조는 다양한 교양을 섭렵하였고 제왕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3. 악장혁신운동의 논리와 그 수성의 미학

(1) 樂道一致의 성리학적 樂章觀

既能易創業 이미 쉽게 創業은 하였지만,
當知難守成 마땅히 守成의 어려움을 알아야 할 것이로다.
세조의 御製詩⁸⁾

6) 『世祖實錄』, 世祖9年, 9月13日 (己巳) 條 참조.

7) 『世祖實錄』 世祖11年 7月 25日 庚午 條 참조.

세조는 창엽보다 수성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기시대 수성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행위가 있으면 어디든지 미학적 평가는 있을 수 있다. 선조들의 창엽정신을 계승하여 수성의 중요성을 어려움으로 표현한 그는 조선의 악장혁신운동을 수성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였다. 그의 악장혁신운동에는 어떤 미학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을까?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다. 조선은 국시는 신유학 즉 성리학이었으며 예악은 유교문화의 핵심이다. 조선의 수성은 성리학적 거대담론이 지배하였으며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의 논리와 그 수성의 미학 저변에는 樂道一致의 성리학적 예술철학이 함의되어 있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 정도전은 “歷代 이래로 天命을 받은 인군은 무릇 功德이 있으면 반드시 樂章에 나타내어 當時를 빛나게 하고, 장래에 전하여 보이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한 시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 시대의 制作이 있게 된다.”⁸⁾라고 하여 악장제작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樂道一致’의 유교적 악장론을 주창하였다.

조선왕조는 건국초기부터 舊樂을 청산하고 新樂을 제정하는데 功力을 기울였다. 유교적 제례작악은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세종은 樂以載道의 정신을 가지고 제례작악을 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세조는 구악을 정리하고 세종이 지은 新樂을 모든 행사에 적용하려는 악장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세조가 樂學都監에 御書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禮를 제정하고 樂을 만드는 데 聖人이 능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천만 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更張함이 없는 것이 聖人이 세상에 나오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른바 禮가 무너지고 樂이 붕괴되는 것도 다만 여기에

8) 『세조실록』 10권, 3년(1457 정축) 11월 27일(정해).

9) 『태조실록』 2년 7월 26일(己巳) 條 참조.

서 비롯될 뿐이다. 世宗께서 하늘이 내신 聖智로서 여러 樂舞를 제정하셨는데, 미쳐 이를 사용하지 못하셨다. 지금에 이르러 비록 文을 숭상하고 武를 연마하기에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에 舉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장차 폐지하여 없앨 것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또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는 군사에서 취하지 못하고 樂署에서도 또한 항상 (음악을) 익혀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 定大業·保太平·發祥·鳳來儀의 新樂을 익히고 舊樂을 다 폐지하라. 그 인물과 軒架의 수와 樂을 익힐 節目을 속히 의논하여 아뢰어라.”라고 하였다.”¹⁰⁾

세조는 국가에 있어서 예와 악이 국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으며 그 예술철학의 저변에는 성리학적 철학관이 깔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 세종임금이 천재적인 자질을 발휘해서 여러 樂舞를 제정하셨는데 미쳐 이것을 국가의 공식행사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新樂은 유교적 예악사상에 근거하여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의 독창적인 형식으로 창작된 樂舞이다. 그러나 구악은 과거 고려 때부터 지속되어오던 불교사상에 입각한 음악과 송나라, 명나라의 악무나 악곡 등일 것이다. 세조는 貫道之器의 입장에서 구악을 모두 폐지하고 신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물, 악기 소도구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고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세조의 이 악장혁신운동은 조선의 국시인 성리미학이 담긴 樂舞들을 직접 시행하는 성격의 운동이다. 세조는 신유학적 국시가 담긴 樂道一致의 악장혁신운동이 조선이 처한 자기시대의 정치적 사명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조선의 음악은 고려 예종 11년(1116)에 송나라 徽宗이 보내준 바 있는 많은 중국계 아악기와 더불어 중국계 음악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 음악은 교린정책상 받아들여져 제반 의례에 사용되긴 했지만 그 음악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우리 민족의 생리에 잘 맞지 않았다. “宋朝

10) 『세조실록』 20권, 6년 4월 22일(무진), 태백산사고본 원전 7집, 390쪽.

가 어지러워지고 더욱이 의종 15년에는 유신들이 함부로 고침으로서 진퇴와 次序가 어지러워지고, 文舞와 武舞가 넘치고 쳐져 같지 않을 뿐 아니라 宋朝에서 의관과 악기만 주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익힐 줄 몰랐다. 그래서 승지 徐溫이 宋나라에 가서 舞儀를 私習하고 돌아와서 가르쳤으나 진퇴의 빠르고 느린 절도가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더욱이 노래를 부르는 악사는 그 가사의 뜻도 모르면서 단지 고저만 외울 뿐이니 귀신과 사람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쓰이는 아악에 대하여 비판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조선악무로 개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악장의 민족주의 논리와 ‘樂教’ 정신

세종은 “우리나라는 본시 鄉樂을 익혀 왔는데 宗廟祭享때 먼저 唐樂을 연주하고 겨우 三獻(終獻) 이후에 鄉樂을 연주하니 祖考들이 평일 날에 들던 음악과 비교하여 어떻겠느냐?(세종 7년 10월) 또 雅樂은 본래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고 실은 중국 음악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鄉樂을 듣고 죽으면 雅樂을 연주하니 어찌된 일이나?(세종 12년 9월)”라고 하면서 민족음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¹¹⁾

세조는 세종의 악장에 대한 위업을 계승하여 원구단을 만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처음으로 圓丘에 직접 제사를 지냈다. 과거에 東方에서는 檀君이 感應하여 난 때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근원에 보답하였으며, …… 祭天壇은 江華 摩尼山에 있다. …… 신라, 고구려, 백제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습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우리 태조대왕이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고려의 제도를 모방하여 南郊에다 원구를 쌓고 하늘에 제사지내어 비를 빌

11) 張師勛(1981a), 28~31쪽 참조.

었다. 태종대왕이 처음 즉위하여 정월 上辛에 원구에서 곡식이 잘 되기를 빌었는데, 곧 이어 천자가 아니면 하늘에 제사지낼 수 없다는 정부의 말로 인하여 마침내 원구의 제사를 없앴다. 마침 날씨가 오랫동안 가물어 비가 오지 않자, 어떤 사람이 “秦 나라는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白帝에게만 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으니 마땅히 靑帝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예문관 제학 卞季良도 아뢰기를, “제후로서 하늘에 제사지낸 자는 魯, 杞, 宋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천자로부터 封地를 나누어 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高皇帝 역시 우리나라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알면서도 의식은 本朝의 풍속대로 따르고 법은 舊章을 지키도록 허락했던 것이니, 대개 海外의 나라로서 애초에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그 말을 따라 다시 원구에 제사를 지냈다. 세종 초년까지만 해도 원구에서 비를 빌었으나, 의논하는 자가 끝내 불편하다고 하였으므로 없애고 거행하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梁誠之의 상소 중, ‘천지 신명에게 제사지내야 한다.’는 말을 깊이 받아들여 원구에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儀註를 마련하게 하였으며, 시일은 중국을 모방하여 정월 15일에 정하였다. 상이 재계하고 면복을 갖추어 입고 단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원구단은 둘레가 6丈 3尺이고 높이가 5척이며 열두 개의 계단과 3개의 墻이 있는데, 매 유는 거리가 25步이고 둘러싼 담장에는 네 개의 문이 있다. 療壇은 神壇 남쪽에 있는데, 넓이가 1장이고 높이가 1장 2척이며 문의 크기는 사방 6척이다. 위를 띄우고 남쪽으로 문을 내었다.¹²⁾

세조는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지낼 수 있다는 원구단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동안 개혁된 악장을 총동원하여 시행하였다. 세조는 조선의 역사적 근원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됨을 천명하였다. 1456년(세조 2) 7월에 朝鮮檀君의 神主를 朝鮮始祖檀君의 神位로 고쳐 정하고, 後朝鮮始祖 箕子를 후조선시조 기자의 신위로, 고구려시조를 고구려시조 동명왕의 신위로 고쳐 정하였다. 1457년 정월에 비로소 圜丘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지내고 조

12) 『국조보감』, 제10권, 세조 2년(1457, 정축).

선 태조를 여기에 배향하였다. 민족의 시조 단군은 우리 역사상 크게 세 번 강조되었다. 고려시대 대몽항쟁시기 민족의 단합이 필요하던 시기에 처음 강조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민심의 분열과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던 조선초기 민족의 대 단합이 필요하던 시기에 강조되었다가 사림파의 명분론에 후퇴하여 소멸되고 1945년 해방이후 민족의 단합이 필요하던 시기에 단군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바로 단군은 민족의 화합이나 통일이 필요할 경우 민족의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한 민족의 신앙으로 강조되었다. 세조는 기본적으로 檀君朝鮮說을 주장했다. 거기에는 민족정통성의 주창과 계유정난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단합하려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었다.

세조는 保太平과 定大業을 개수하여 圓丘에 제사지내고 宗廟에 제사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삼았다. 처음에 세종이 雅樂을 고증하여 景安, 肅安, 雍安, 壽安의 악장을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으로 정하고, 또 달에 따라서 율을 쓰는 음악을 제정하여 宴享과 會禮에 사용하였다. 이후에 朴堧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俗樂은 土俗에서 일어난 것으로 雅頌을 쓰던 때에 國風이 있었던 것과 한 가지입니다. 완전히 폐지할 필요는 없으니, 바로잡아 상하가 통용하는 음악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세조가 마침내 국초의 鼓吹樂에다 雅音으로 旋宮하는 법을 붙여 보태평, 정대업 등 舞曲을 지어 연향과 회례의 終章에 쓰게 하였다. 상이 처음 즉위하여 종묘에 직접 제사지내고 돌아와 경회루에 나아가서 飲福宴을 베풀었는데, 이때 보태평, 정대업의 춤을 보고 정인지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것을 보면 祖宗의 創業이 어려웠다는 것과 세종의 制作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서 명하기를, “樂學과 慣習 都監을 하나의 官司로 통합하여 樂學都監이라 칭하고 雅樂署와 典樂署를 하나의 관사로 통합하여 掌樂署라 칭할 것이며, 齋郎·舞工·樂生은 左坊에 소속시키고 樂工은 右坊에 소속시키고 악생을 嘉成郎左坊令이라

고 부르라.”라고 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禮를 제정하는 것은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천수만 년이 지나도록 更張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성인이 세상에 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종께서 하늘이 내려준 聖智로 여러 樂舞를 제작하셨는데도 미처 쓰지 못하였으니, 지금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정대업, 보태평, 發祥, 鳳來儀 등 새 악장을 익히고 옛 악장을 모두 폐지하되 인물과 軒架의 수, 익히는 절목에 대해 속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고 마침내 양성지와 成任을 악학도감 제조로 삼아 새 악장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였다. 상이 별도로 曲譜를 지어 上一에서 上五까지, 下一에서 下五까지를 가지고 慢·中·數 三調의 규정을 정하였는데, 무릇 중에 해당되는 것이 宮이고 궁 이상은 삭이 되고 宮 이하는 慢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악의 淸黃이 속악의 上二가 되고, 淸林이 上五가 되고, 黃鐘이 下三이 되고, 濁林이 下五가 되었으니, 모두 세종조의 보태평, 정대업의 곡보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또 아악의 옛 제도를 없애고 속악의 새 제도로써 대신하였으니, 아악은 堂上에는 絃歌가 있고 匏竹이 없으며 堂下에는 포죽이 있고 현가가 없는데 비해 속악은 당상과 당하에 모두 현가가 포죽이 있고 箏箏과 비파 등의 악기가 섞여 있었다. 또 아악은 迎神할 때 天·地·人에 따라 그 수를 달리하여 天神은 6성, 地祇는 8성, 人鬼는 9성이며, 그 밖에 裸獻 이하는 당상에서는 陰呂가 오른쪽으로 돌아 곡을 마치고 당하에서는 陽律이 왼쪽으로 돌아 곡을 마친 다음 음양이 소리를 합해 번갈아가며 연주하되 매 節을 각각 1성으로 한 데 비해 속악은 천신과 인귀의 구분이 없이 영신부터 三獻까지 모두 각각 9성을 연주하였고, 또 각각 引入과 引出이 있어 11聲이 되었다. 그리고 원구에는 당상과 당하 모두 夾鐘 徵音을 써서 곡조를 시작하고 마치며 종묘에는 당상과 당하 모두 黃鐘 淸宮을 써서 곡조를 시작하고 마쳐, 陽은 있되 陰은 없고 倡은 있되 和는 없었으므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도

는 절차도 없었으니, 한 번 제사지내는 때를 통틀면 모두 47성이었다. 이는 모두 叡智로 재정한 것으로 정대업, 보태평 가사를 지을 때 龍飛御天歌 15장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향의 악장가사가 아니라고 하여 崔恒에게 명하여 악장을 改撰하게 하였다. 이것은 『국조보감』에 실려있는 보충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訥齋는 세조의 명을 받아 「龍飛御天歌」를 악장으로 개수하면서 그 부당함을 말하기를 “古事를 끌어다가 지금의 일을 증거하고 反復하여 노래하고 읊었으므로 偏次가 浩瀚하여 진실로 그 요점을 모아서 그 大綱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¹³⁾라고 하고 있어 「용비어천가」를 당대의 악장으로 고쳐 악보에 맞추려니 합리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놀재는 고사를 끌어서 연관시키는 현실성 없는 전기적인 요소들의 심한 반복에 대한 허구와 여러 사건들을 집체한 성격으로 작품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된 점을 용비어천가의 결점으로 제시한 듯하다.

세조는 그동안의 악장혁신운동의 결과를 총 반영하여 원구단 제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의 그 미학적 성격은 樂道一致의 신유학적 악장론과 다른 하나는 중국과 다른 민족주체성과 우리의 향토사상을 불어넣는 민족 악장의 성격이다. 세조의 악장혁신운동과 守成의 악장들은 대부분 유교적 프로파간다로서 호건하며 우아하고 전아한 풍격의 미학을 지니고 있다.

세조는 양성지 등에게 원구단 교천례의 성공적 결과에 대해 상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文王을 明堂에 宗祀하여 상제께 제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로 帝王의 盛事이다. 또 내가 처음으로 新樂을 제정하여 郊廟에 사용하여서 드디어 大禮를 치루어 先王의 뜻이 이제 와서 이루어졌으니

13) 『世祖實錄』, 3년 6월 28일(庚申) 條 참조.

기쁨을 헤아리겠느냐?” …… “禮를 제정하고 樂을 만드는 것은 대개 백 년이 되어야 가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다행히 하루아침에 완성하고, 이에 교묘의 제사에 연주하여 신과 사람이 다같이 기뻐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太祖께서 鴻業의 터전을 열으셨으나 바야흐르 草昧의 經綸을 당하여 禮樂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었으며, 우리 세종 때에 이르러 큰 운수를 타고나서 대업을 안정하는 상징과 태평을 보존하는 생각에서 악·무를 제정하여 장차 교묘에 薦用하려 하였으나, 뜻만 가지고 미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조기를 이어 지키게 되어, 선왕의 뜻에 따를 것을 생각하고 後嗣에 영원히 보일 것을 기약하여 다시 두 가지 춤을 제정해서 禋祀에 사용하니, 지극한 흠이 神明에 통하고 和氣가 上下에 融和하여 마침내 大禮가 이루어졌으니 非常한 恩典을 宣布한다.”¹⁴⁾

세조는 천자만이 올릴 수 있는 원구단에 제사를 지내면서 세종이 만든 新樂을 사용하여 시험 삼아 시행하게 한 결과 성공했다. 세조는 지극한 흠이 신명에 통하고 화기가 상하에 융화하여 대례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여 그동안 노력한 신하들의 노고에 대해 비상한 은전을 선포했다. 세종이 制禮作樂 하고 세조가 악장을 혁신하여 실제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어려웠다. 원구단의 교천례 행사는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의 시험무대였으며 그 악장혁신운동의 방향은 樂道一致의 성리학적 토대위에 중국의 악장에서 벗어난 민족고유의 자주적 사상의 융합이었다. 여기서 세조의 예악에 대한 수정의 방향과 우리 민족 악장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세조는 악장개혁운동의 선봉에 서서 그 동안 개혁해오던 것을 원구단 제사에 실제 적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세조는 舊樂을 정리하고 세종이 지은 新樂을 모든 행사에 적용하려는 악장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민족예악의 실천운동으로 볼 수 있다.

세조가 宗廟에 친히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定大業·保太平의 음악

14) 『世祖實錄』, 10년 1월 15일(戊辰) 條 참조.

을 연주하였고 그 의식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때 保太平의 춤과 定大業의 춤을 새로 만들고 보완하였으며 도구들을 갖추었다. 이 때 종묘제례악으로 정해진 定大業과 保太平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¹⁵⁾ 세조는 천자만이 올릴 수 있는 원구단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동안 만든 新樂을 사용하여 시험 삼아 梁誠之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결과 성공했다. 세조의 예악에 대한 관심은 국시인 유교와 우리의 민족주체성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세종 당시에 지어졌던 우리의 樂舞가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음악사는 물론이고 조선전기 詩歌史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세종대의 制禮作樂 중에 가장 뛰어나고 조선 건국과 함께 지어졌던 樂章들이 집대성 된 「용비어천가」도 세조 당대까지는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세조는 이 樂舞의 실용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버리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선의 樂章은 가사와 음악과 무용을 의식하면서 지어졌으며, 詩·樂·舞의 삼위 일체가 되는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조는 세종의 제례작악 정신을 계승한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바로 15세기 후반에 성리학적 朝鮮樂章(詩·樂·舞)의 혁신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조선의 악장이 제후의 음악에서 천자의 음악을 지향하는 자주국가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 성격은 악도일치의 성리학적 악장관과 민족의 자주성을 천명하고 舊樂 청산과 애국애족가사의 계승발전,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조선의 긍지심 고취, 治世之音의 강화, 歌詞의 구체적·합리적·사실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조의 원구단 교천례 행사이후 조선의 악풍이 달라지고 있었다.

세조는 악장의 존재가치를 유교적 역사상에 입각한 樂敎의 정신에서

15) 張師勛(1981), 31쪽 참조.

찾아 그 실용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樂道一致의 경세적인 음악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악장으로 형상화하여 민족주체성을 확대하려는 자주적인 의식이 깔려있다.

樂教는 聲教와 容教가 있다. 聲教는 노래의 교화를 말하고, 容教는 무용의 교화를 말한다. 聲教는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고, 容教는 사람들에게 威儀를 바르게 한다. 樂은 시·소리·춤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것이다.¹⁶⁾ 訥齋는 樂舞에 관심을 보이면서 舞에 대한 도구와 소용되는 인원을 토대로 「保太平圖」와 「定大業圖」를 보완하여 새로 만들었다. 保太平之舞는 「籥」과 「翟」을 舞者들이 쥐었고, 定大業之舞는 劍·槍·弓·矢를 잡고 춤을 추었다. 전자는 文舞요 후자는 武舞이다.¹⁷⁾

세조 5년 사월에 세조는 양성지와 성임으로 악학도감제조를 삼으시어 신악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도록 하시었다.¹⁸⁾ 성임과 양성지는 세조의 명으로 신악을 익히고 악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新製雅樂譜圖」를 만들어 올렸다. 세조실록에는 「등가도」「헌가도」「보태평도」와 「정대업도」의 도록이 있다. 세조는 양성지, 성임 등에게 명하여 천자의 예로 신악을 만들어 園丘壇에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음악을 천자의 예에 맞게 시험하여 성공했다.

세종대의 制禮作樂 중에 가장 뛰어나고 조선 건국과 함께 지어졌던 악장들이 집대성된 「용비어천가」도 세조 당대까지는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세조는 이 예악과 악무의 실용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버리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세조의 이

16) 『禮記』, 『樂記』. “故歌之爲言也 長言之也 說之故言之 言之不足 故長言之 長言之不足 故嗟嘆之 嗟嘆之不足 故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

17) 李敏弘(1997a), 54쪽.

18) 『訥齋集』 卷6, 「遺事」. “世宗 以天縱聖智 製諸樂舞 未及用之 此時不舉 後張廢棄 豈不惜哉 自今肄 定大業 保太平發祥鳳來儀等 新樂 而盡廢舊樂 其人物軒架之數 肄習節目 速議以啓 遂以梁誠之 成任 爲樂學都監提調 教習新樂 (國朝寶鑑)”

언급으로 보면 소실될 위협에 처해 있는 세종 당시에 애써 지어진 제례 작악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조의 악장은 민족주체성과 악교의 정신이 담긴 수성의 테마였으며, 詩·樂·舞이 삼위일체가 되는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 악장의 國體의식과 세계화 논리

세조는 대군시절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세종을 대신해서 관장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세조는 조선에 오는 외국 사신들에게 연주하는 예악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을 늘재 양성지에게 연구하도록 했다. 늘재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한 왕조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 왕조의 制禮作樂 있는 것이니, 때에 따라 덜 것은 덜어 버리고 보탬 것은 보태야 하는 것으로서 한 가지만 고집하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이 예조에서 왜인과 야인에게 賜宴을 할 때보니 男樂을 사용하여 歌舞와 衣冠의 차림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隣國사람들에게 듣게 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番使에게 賜宴할 때에는 雜技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명나라의 사신을 연향할 때에는 또한 女樂을 사용합니다. 바라옵건데 지금부터는 東北의 사자를 연향할 때에는 舞童을 제거하고 女樂으로 고쳐 쓰며 西朝의 사신을 宴享할 때는 또 우리나라의 잡기 중에서 불만한 것은 골라서 겸하여 사용하게 하십시오¹⁹⁾

訥齋는 세조에게 한 왕조가 일어나면 한 왕조의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예악개혁운동의 당연성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왜인과 야인에게 男

19) 『訥齋集』, 卷3, 「軍國便宜十事」. “一代之興 必有一代之制禮樂 因時損益 不可執一而爲之也 臣觀 禮曹宴倭野人之時 用男樂 歌舞衣冠 不堪掛目 是不可使聞於隣國也 今中國宴藩使 用雜技 本朝之宴 大明使 亦用女樂 乞自今 宴東北使 際舞童 改用女樂 其宴西朝使 則又擇本國雜技之可觀者 兼用之.”

樂을 연주하는데 그 가무와 옷차림새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이웃나라 사신들에게 보여줄 것이 못된다고 했다. 또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만 女樂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동북의 使者들이 올 때도 명나라와 똑같이 女樂을 사용하고, 西朝의 사신을 宴享할 때는 우리나라 잡기 중에서 뛰어난 것을 골라서 사용하자는 개혁안을 올렸다.

세조는 대군시절부터 일찍이 외국 사신을 전별하는 전별연을 주관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세조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다. 男樂은 女樂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것이며 이 女樂은 명나라 사신만을 위해 연주되고 있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독특한 사대를 반대하고 이웃나라에게도 조선의 뛰어난 예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세조는 공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독 명나라만을 위한 사대교린에서 한 차원 높여 조선의 國體를 인식한 세계화의 지향이었다. 동남아의 중심국으로 중국의 변방 제후국으로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중심에서 자주적인 국가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예악외교정치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제안에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민족 자존심과 우리의 음악을 사용하지는 민족음악에 대한 열정이 들어 있다.

세조의 음악에 대한 민족적인 인식은 『악학궤범』을 편찬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세조가 樂舞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는 것에서도 증명된다. 세조는 악장혁신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 예악을 실천에 옮긴 역사적인 공을 이룩하였다.

訥齋는 세조의 명으로 舞에 대한 도구와 소용되는 인원을 토대로 「保太平圖」와 「定大業圖」를 만들었다. 保太平之舞는 ‘籥’과 ‘翟’을 舞者들이 쥐었고, 定大業之舞는 劍·槍·弓·矢를 잡고 춤을 추었다. 전자는 文舞요 후자는 武舞이다.²⁰⁾ 訥齋는 세조의 명으로 무에 관한 것을 현 실정에

20) 李敏弘, 『韓民族樂舞와 禮樂思想』,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 제2집, 집문당, 1997, 54쪽.

맞게 다시 조정하고 규모를 정하여 다시 樂舞圖를 만들었다. 訥齋가 만든 이 도표는 악학궤범에 실려 있는 도표와 똑같다.

『樂學軌範』의 舞譜에는 『高麗史』, 『樂志』, 『舞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初入排列圖’, ‘王母獻桃圖’, ‘作隊回舞圖’, ‘作隊圖’, ‘進舞圖’, ‘回舞圖’, ‘回舞擊鼓圖’, ‘五方作隊圖’, ‘始終回舞圖’ 등이 앞에 소개되어 있어 의장대가 서는 위치, 竹竿子(죽간지)가 서는 자리, 춤추는 사람의 배치 방법이 고려사 악지에 비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樂學軌範』, 『舞譜』는 『高麗史』, 『악지』에 비해 진일보한 『舞譜』라고 할 수 있다.²¹⁾ 이렇게 볼 때 악장은 詩, 樂, 舞를 동시에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은 詩·樂·舞의 종합적인 사실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樂章의 정의는 보충된다. 『악학궤범』은 世祖代의 악장혁신운동을 거치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진 조선의 음악의 전범이며 민족 악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세조는 조선민족악장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음악정책으로 ‘藩部樂’을 제정하였다. ‘번부악’의 개념은 조선조가 일종의 皇帝이거나 주변국가의 맹주임을 전제로 한 악무 인식이다. 唐樂을 수입, 또는 억지로 수용하여 雅樂으로 격상시켜 연희한 것과는 달리 왜와 여진의 사신들을 영접하지는 주장은 중국이 四夷의 악무를 천하통치의 시각에서 활용한 의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음악을 통한 외교정책으로서 조선의 국가위상을 천자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세조는 악무에 있어서도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서 동양사상의 중심을 조선에 두고 주변 국가들을 경영하려는 세계화의 의지가 보인다. 세조는 訥齋는 ‘번부악’을 설치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받아들였다.

21) 張師勛(1984b), 69~71쪽, 참조.

藩部樂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중국의 樂은 雅樂·俗樂·女樂·夷部 등의 악이 있는데, 本曹에서 사용하는 것은 軒架·鼓吹·童男·妓女·假面雜戲 등의 제도가 있으니, 대저 樂이란 象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조께서 천운을 타고 興起 하심으로부터 태종·세종께서 서로 이으시니 東隣의 獻琛과 北國의 款塞으로 禮를 제정하고 樂을 만들어 雅樂·俗樂이 모두 바르게 되었으나 홀로 藩樂은 아직 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성상께서 龍飛하여 大位에 새로 등극하시어 日本·女眞의 사자가 와서 즉위를 하례 하는 자가 항상 수백 인이 闕廷에서 절하고 비오니, 海東의 文物이 이때 보다 성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빌건대 일본의 歌舞로써 東部樂을 삼고, 여진의 가무로써 北部樂을 삼아서 日本樂은 三浦의 왜인에게 익히게 하고, 女眞樂은 五嶺의 아인에게 익히게 하되, 그 衣冠制度가 괴상하다고 조롱당하지 말고, 東使에게 잔치하면 겸하여 北樂을 쓰되 東樂은 쓰지 않고, 北使에게 잔치하면 겸하여 東樂을 쓰되 北樂은 쓰지 않으며,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면 아울러 東樂·北樂을 쓰고 나아가 조정에서도 이를 쓰고 宗廟에도 연주하게 하여, 태평한 다스림을 賁飾하고 우리 祖宗의 業을 빛나게 하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²²⁾

세조는 조선조의 樂을 중국의 樂과 대비시켜 세계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중국에도 夷部樂이 있는 터에 조선조도 여기에 해당하는 '번부악'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藩國에 대한 표현은 선례가 있었다. 고려조 국가의 공식축전이었던 팔관회에서도 송상과 東·西藩인 倭와 女眞, 그리고 탐라국 등이 예물을 바치고 참석하였다는 기록에서 西藩은 중국 서쪽에 있는 북방민족의 여러 국가들을 의미하고, 東藩은 倭를 지칭한다. 訥齋가 藩國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며, 藩國은 민족 주체성이 강한 용어이다.

세조 10년 新年賀禮式에 倭와 野人들도 반열에 끼여 있었다. 세조가 왜인과 야인들에게 근정전에 올라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라고 했다는 기

22) 『訥齋集』, 卷2, 「便宜二十四事, 設番部樂」 참조.

록이 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려면 음악이 필요하다. ‘藩部樂’의 설정은 이런 점에서도 필요했으며 그 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 음악을 연주하여 주려는 외교정책으로 交隣의 뜻이 강했다. 조선의 국가위상이 이렇게 강했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튼튼한 국방력과 주변 국가에 대한 통제의 정책에서, 동아시아의 자주적인 국가로서 진취적인 기상이 넘쳐흐른다. 여진·일본·몽고 등 주변국가를 예악으로 다스리려는 시도는 황제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원대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訥齋의 藩部樂에 대한 주장은 민족예악의 차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²³⁾ 세조의 예악사상과 제천의식에는 민족 주체성이 서려 있고 국가의 위상이 들어 있으며 경세적인 실용정신이 포함되어있다.

신이 그옥이 들건대, 樂에는 雅樂·俗樂·唐樂·鄉樂이 있고 男樂이 있고 女樂이 있으며, 또 藩部·雜伎도 있고 또 軒架·鼓吹의 제도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鄉樂은 新羅로부터 비롯되었고, 雅樂은 宋나라에서 大晟樂을 내려 준 것인데 그 鍾·磬·太常은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중국 사신 倪謙이 와서 軒架樂을 보고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으니 이는 가히 기쁜 일입니다. 근년에 文舞·武舞의 2무를 폐하고 또 헌가의 수를 감하였는데 신은 聲樂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雅樂을 폐하고서 쓰지 않으면 太常의 樂工이 늙어 죽어서 다할 것이니 후일에 비록 다시 雅正한 품을 듣고자 하더라도 얻어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大臣에게 명하여 상세히 의논을 더하여 정하여서 지금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을 병행하여 폐하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²⁴⁾

訥齋는 조선조 악무를 주장하면서도 아악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악무가 설치되어 신라 때부터 이어온 우리나라

23) 이민홍, (1997b) 참조.

24) 『睿宗實錄』, 1년 6월 29일(辛巳) 條 참조.

향악을 바탕으로 男樂, 女樂, 藩部, 雜伎 등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악이 사라져 가고 舊樂의 형태가 변질되어서 古例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목격한 訥齋는 아악을 현재의 음악인 향악과 병행하여 연주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아정의 음을 듣고 치세지음을 지향하려는 정치의식이 깔려 있다.

세조는 세종 때 제정된 예악이 쓰이지 않는데 대해 梁誠之 등의 관료들 통해서 실용화에 힘쓰도록 권장한 바가 있다. 梁誠之는 예악의 실용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세종이 창작한 새로운 樂舞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朴堧이 구악을 정리하면서 향악은 보잘것없다고 하면서 명나라 대성악을 극구 칭찬했다. 그래서 악을 만들고 정리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에 訥齋는 향악을 중요시하여 우리의 음악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樂舞를 우리민족의 상황에 맞게 개혁했다. 조선조는 실로 동양사회에서 창출된 예악을 완벽하게 통합하여 국가를 경영한 중세국가의 전범이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梁誠之의 악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당시 관료들의 노력이 경주되었을 것이다.

세조는 악장의 존재가치를 신유학사상의 樂敎의 정신에서 찾아 그 실용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세적인 음악관을 가지고 있다. 세조는 민족예악의 國樂에 기초를 두고 樂敎의 정신을 추구해 나갔다. 악장의 효용은 질서 있는 사회와 잘 다스려지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세조는 당대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관제음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악장의 창작은 치세의 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세조의 악장개혁은 이웃나라에 대한 외교정치로 交隣 지향적이다.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하여 민족주체성을 확대하려는 자주적인 의식이 깔려 있다. 세조의 樂道一致의 樂敎정신은 음악으로서 정치를 보좌

하고 백성들을 교화하여 성인의 도에 부합하려는 높은 이상이 서려있다.

세조가 “이제 연주한 새 樂曲이 大禮를 잘 진행하여 하나도 差失이 없으니, 世宗의 遺意를 이루어 매우 기쁘다.”하니 박원형 등이 이르기를 “만일 성상의 좋은 계승이 없었더라면 세종의 뜻도 마침내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²⁵⁾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뒷날 조선악장의 전범이 되었다. 訥齋는 독립제후의 나라에서 한 차원 높여 천자의 나라라는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祭天禮를 지지했다. 제사에 太祖를 배향한 사실을 들어 무왕과 주공의 達孝와 같은 것이라고 하여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을 적극 옹호하였다. 그는 이에서 더 나아가 비단 祭天禮뿐만 아니라 중국 천자만이 할 수 있다는 생신일의 창질, 연호의 제정, 번부악의 제정을 주장하여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당시에 세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종묘제례악의 保太平이나, 定大業 등의 樂舞制度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되고 있었으며, 세조가 악장혁신운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에 대해 늘제는 악장혁신운동의 도구일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 당시의 실정으로 新樂을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부족하며 쓸 만한 것은 단지 한 벌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악장혁신운동에 필요한 도구를 지정하여 보고하였다. 세조는 종묘제례악에 新樂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파악하여 전개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완벽하게 보완하였다.

訥齋는 의관과 언어가 예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풍속을 지킬 것을 세조에게 건의하였다. 세조는 언어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생각하며 중국의 제도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세조의 이러한 의도 속에는 우리의 글과 우리의 언어로 음악

25) 『世祖實錄』, 10년 1월 14일(丁卯) 條 참조.

을 만들어 활용하지는 민족의 자부심이 깔려있었다. 세조의 중국에 대한 외교는 민족 주체적이며 조선의 자긍심이 함의된 것으로 맹목적인 사대를 배격하고 맹자가 왕도정치로 주장한 以小事大 정신에 입각하고 있었다.

정조는 纂輯堂上을 소견하였다. 정조임금이 奉朝賀 徐命膺에게 이르기를, “世祖朝에 郊天禮를 썼었는데 이는 大節文이다. 그런데 卿은 天子의 禮이기 때문에 기록하여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대저 우리 조정이 명나라 조정에 대해서는 萬曆을 전후하여 구별을 두고 있고 또 國初이래 祖宗이라고 칭하였어도 皇朝에서 금하지 않았었다. 교천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祖宗朝의 故事에 관계된 것이니, 경들은 잘 商量하여 損益하고 裒輯할 것이요 避嫌할 필요가 없다.”²⁶⁾라고 하였다.

정조는 원구단에서 교천례를 지내려 하자 봉조하 서명응이 교천례는 중국의 황제들만 지낼 수 있는 천자의 예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정조는 세조가 원구단에 지냈던 교천례를 위대한 절문이라고 하며 조사하게 한 적이 있었다. 정조는 세조의 악장혁신훈동과 원구단 행사를 조선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세조 이후 사림파의 등장으로 인해 원구단의 제사가 중지된 것 같다.

세조는 아들에게 예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御札을 世子에게 주며 이르기를, “禮樂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되는 것이나 어버이를 섬기는 禮는 더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무릇 禮라는 것은 몸의 엄숙함이니 엄숙함은 나약함을 다스리는 것이다. 樂이란 것은 동작의 화합이니 화합은 暴虐함을 다스리는 것이다. 엄숙함이 아니면 몸을 세울 수 없고 화합이 아니면 發用할 수 없는 것이니, 엄숙하지 아니하고 몸을 세우면 몸에 굳음이 없고 和하지 아니하고 발용하면 동작이 통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聖人이

26) 『정조실록』 12권, 5년(1781 신축) 11월 10일(무신).

物이 인연하여 教化를 베풀어 백성의 뜻을 미리 안정시키고 천하의 형세를 굳게 하여 태평한 교화를 이루는 소이다. 그러므로 예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를 가볍게 하면 그 폐단이 야비함을 이루고, 樂보다 요긴함이 없는데 速함에 흐르면 그 폐단이 음탕함을 이룰 것이다. 가볍게 하지 말고 이를 지켜서 변치 않게 하며 流用하지 말고 절조 있게 쓰면, 비록 軍陣과 燕閑 의 즈음이라도 일마다 근원을 만나 취해 씀이 무궁할 것이니, 선왕의 뜻을 이어 일을 행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위의 말은 대략을 말한 것이고 세세한 조목은 너 스스로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힘써 행하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써서 내려주니, 허리 띠 에 써서 잊지 말도록 하라.”²⁷⁾라고 하였다. 여기서 세조가 예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15세기 조선의 수성을 위한 세조의 악장혁신운동은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었다. 그의 악장혁신운동의 근간이 되는 경세철학의 미학적 논리는 조선의 국시가 함의된 樂道一致의 성리학적 예술관과 조선의 자긍심과 민족주체성이 담긴 민족예악의 예술적 교양이었다.

4. 결론

이상으로 15세기 조선 한문학에 나타난 미학 조명의 일환으로 세조의 악장혁신운동과 그 수성의 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15세기 조선 한문학에 나타난 미학을 조명하면서 악장을 빼고는 서술되기 어렵다. 악장은 모든 행사에 공연되는 가사(詩)·음악(樂)·무용(舞)의 종합예술로서 15세기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백미이다.

세조의 악장혁신운동과 그 수성의 미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7) 『세조실록』 29권, 8년(1462 임오) 8월 20일(임오).

하나는 조선의 신유학적 국시가 담긴 악도일치의 성리학적 예술철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는 다른 민족 고유의 사상과 황제국을 지향하는 자주적인 민족주체성이 담긴 조선민족예악의 천명이다. 셋째는 조선 악장의 국제인식과 세계화를 향한 옹호한 기상이다. 세조는 이 세 갈래의 실천과제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을 악장혁신운동과 그 수성의 미학으로 인식했다.

조선의 가장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왕, 왕위찬탈로 인해 조선왕조상 가장 악한임금으로 평가받는 분이 곧 세조이다. 그러나 세조는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악장혁신운동은 우리 역사상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다.

그의 악장혁신운동에 나타나는 수성의 미학에는 조선의 국격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중국의 악장에서 벗어나려는 주체성과 황제의 나라를 지향한 국가의 원대한 비전이 들어 있었다. 우리민족의 정통성과 민족의 진취적 기상이 들어있고, 조선의 자긍심이 들어있었다.

15세기 후반에 성리학적 朝鮮樂章(詩·樂·舞)의 혁신운동이 위대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후의 음악에서 천자음악 위주의 음악을 지향하는 자주 국가의 원칙성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그 성격은 건국의 국시인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악도일치의 성리학적 악장관을 고수하고 있었다. 또 민족의 자주성을 천명하고 舊樂 청산과 애국가사의 계승발전, 조선 국가의 긍지심 고취, 治世之音의 강화, 歌詞가 구체적·합리적·사실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세조의 원구단 교천례는 조선건국부터 공력을 기울여오던 악장혁신운동의 종합이었다. 그동안 개혁한 조선의 악무가 총동원된 행사였으며 조선의 국가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화를 지향한 민족의 자긍심을 최대한 신장시킨 위대한 업적이었다. 원구단 행사이후 조선의 악풍이 달라지고 있었다. 세조의 예악사상과 제천의식에는 민족 주체성이 서려있고 국가의

위상이 들어 있으며 경제적인 실용정신이 포함되어있다. 세조의 악장혁신 운동과 守成의 악장들은 대부분 유교적 프로파간다로서 호건하며 우아하고 전아한 풍격의 미학을 지니고 있다. 15세기 조선 한문학의 미학에 대한 조명과 악장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67.
『국역 악학궤범 I, II』, 민족문화추진회, 1967.
『국조인물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增補文獻備考』, 韓國學振興院, 1986.
姜希孟, 『私淑齋集』, 韓國文集叢刊 12집.
金守溫, 『拭疣集』, 韓國文集叢刊 9집.
卞季良, 『春亭集』, 韓國文集叢刊 8집.
徐居正, 『四佳集』, 韓國文集叢刊 10·11집.
徐居正외. 『국역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1983.
梁誠之, 『訥齋集』, 韓國文集叢刊 9집.
鄭道傳, 『三峰集』, 韓國文集叢刊 5집.
정조, 『국역 弘齋全書』, 민족문화추진회, 2001.
CD국역조선왕조실록 증보판,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조선왕조실록CD-ROM간행위원회, 1995.
- 양광석 외, 『한국문학사상사』, 계명문화사, 1991.
文一平, 『湖岩全集』, 1~4권, 三文社, 1978.
李敏弘, 『韓國民族樂舞와 禮樂思想』,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 제2집, 집문당, 1997a.
_____, 『한국민족악무와 예악사상』, 집문당, 1997b.
李成茂, 『조선의 과거제도』, 춘추문고, 한국일보사, 1976.
李海炯, 국역 「동국통감」, 탐구당, 1990.
張師勛, 『한국 전통음악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 張師勛, 『韓國舞蹈概論』, 大光文化社, 1984.
- 한영우 외,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사, 2001.
-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사상』, 춘추문고017, 한국일보사, 1976.
- _____,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1.
- _____, 『조선전기 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83.
- 申斗煥, 「訥齋 梁誠之의 상소문에 나타난 현실대응논리」, 『한문학보』 제3집, 우 리한문학회, 2000.
- _____, 「訥齋 梁誠之의 頌에 대한 一研究」, 『한국시가연구』 제9집, 한국시가학 회, 2001.
- _____, 『놀이 양성지의 예약사상과 문학세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조선전기 민족예약과 관각문학』, 국학자료원, 2004.

투고일 2012. 1. 31 심사시작일 2012. 2. 3 심사완료일 2012. 2. 20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The guard(守成) and a reform movement of the movement(樂章) for The king Sae-jo(世祖)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The guard(守成) and a reform movement of the movement(樂章) for The king Sae-jo(世祖: 1417~1468, 14 on the throne, 1455~1468).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15th century in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A reform movement of the movement(樂章) for The king Sae-jo(世祖) is national, independent, rational and scientific, excellent political activities.

His thoughts include Chosun's independent pride and advanced outlook on the world. The foundation of his a movement of music(樂章) is directed toward the kingdom of not the king but the Emperor.

It pursues the policy of confucianism, but it is a good piece of literature, having tension and relaxation. This custom originated in confucianism. His the movement(樂章) is expressing the importance of a political campaign and confucian propaganda.

The movement is construction is very close, and the contents are nonfiction based on historical facts. But it is an outstanding piece of literature, producing the epic emotion. His the movement towards The country of the Emperor.

The movement is enhance the national conscious by showing the dignity of the nation and the attachment to a country. This is an outstanding the race literary works.

The movement is the ceremony on Court circles. This is based on historical facts, but the construction this is very close and the plot is unified. The realistic and vivid description makes them outstanding literary work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is a movement of music(樂章) contains the large-minded and free-heartedness(豪健) and elegance(典雅).

Keyword The Chosun Dynasty, The king Sae-jo, The guard(守成), confucian propaganda, the movement(樂章).